

## 교환학생 수학보고서

### 1. 기본정보

학과		이름	
파견국가	일본	파견도시	오사카
파견대학	오사카 가쿠인 대학	파견기간	1년
귀국여부			

### 2.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<i>파견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i></p> <p>한큐 쇼자쿠 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. 보통 아파트에 살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전 역인 아이카와에 거주하게 되므로 학교까지 가는데 전철로는 10~15분, 걸어서는 30~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. JR 키시베 역과도 가깝고 우메다까지 전철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므로 놀러 가기 용의합니다. 학교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. 학교 편차치가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니어서 그런지 학생들 태도는 상당히 불량합니다. 학생 식당에서도 드러누워 있는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</p>

수업	<p>본인이 수강한 과목,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.  예) 수업내용, 수업방법, 과제, 수업준비, 추천과목, 비추천과목 등</p> <p>유학생 수업 문법 D클래스 : 마츠다 선생님  월~금 9시부터 11시 10분까지 진행하는 수업입니다.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고 월요일은 경어, 수요일은 자유 발표, 금요일엔 작문, 나머지 시간은 문법을 배웠습니다. 과제는 초반엔 매일 한 두 장 정도로 나왔지만 봄 학기로 넘어가면서 동사 시험을 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. 지각 3번에 결석 1번으로 처리되고 결석이 총 출석일 1/3을 넘으면 F를 받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. 마츠다 선생님 수업은 매우 친절하고 혼내는 일이 거의 없어 인기가 많습니다. 학생 대부분이 한국인과 대만인, 중국인 등 동아시아 인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</p> <p>유학생 수업 한자 B 클래스  한자 수업은 화요일 9시부터 딱 한 시간 이루어집니다. 가을 학기 B클래스는 정말 매우 쉬운 한자들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. 책이 반절 지난 봄 학기에는 조금 더 어려워 진다고 합니다. 과제는 딱히 없지만 수업 시작할 때 이전 시간에 나누어 준 프린트 시험을 봤습니다. 이 프린트로 중간 기말 시험도 나왔습니다. 한국, 대만은 거의 없고 거의 서양, 중국인이 많습니다.</p> <p>유학생 수업 한자 C클래스 : 유키 선생님  봄 학기에 C클래스로 올라가 수업을 들었습니다. B클래스에 비해 한자도 어렵고 숙제도 굉장히 많습니다. C클래스에서도 수업 시작 때 쪽지시험을 봅니다. 동서양 학생들이 반씩 섞여있었습니다.</p> <p>위 문법/한자 수업은 유학생 모두 오전 필수로 들어야 하는 수업입니다. 초반 OT기간에 본 시험 결과 및 면접을 바탕으로 반이 나뉩니다.</p> <p>중상급 회화 : 이소미 선생님  오후 선택 과목입니다. 초반에는 선생님도 재미있고 회화 실력을 기르고 싶어 들어갔는데, 아직 일본어 회화가 잘 되지 않는 A, B클래스 학생들이 많아 소통 자체가 어려웠습니다. 그리고 수업도 회화 중심에서 점점 발표 중심으로 바뀌어 가 마지막엔 회화를 배우러 온 건지 발표를 배우러 온 건지 싶었습니다. 이소미 선생님은 자기소개서나 무언가 조사가 필요한 과제를 매우 많이 내시므로 그런 과제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들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수업이었기</p>
----	---

때문에 참여 수업을 듣고 싶은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.

#### 심리학

2017-2학기 학부 수업입니다. 총 수강 학생이 400명이 넘었던 충격적인 수업입니다. 인원이 너무 많아 학생 제어가 되질 않으니 뭘 해도 소란스럽고, 선생님께서 학생이 너무 많다며 출석을 놓으시는 바람에 시험으로만 성적이 산출되었습니다. 전 이 이상 교양 성적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재미로 들었던 수업이었기 때문에 한 3주 듣고 못 들겠다 싶어서 던졌습니다. 시험은 오픈 북 시험이었다고 합니다.

#### 디지털 통신

2017-2학기 학부 수업입니다. 저는 교과서를 안 사서 잘은 모르겠지만 교수님이 칠판에 전부 필기해주시기 때문에 없어서 불편한 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. 과제는 따로 없고 출석과 기말이 7:3으로 반영됩니다. 교수님 발음이 매우 알아듣기 어렵습니다.

#### 어플리케이션 개발 입문

2017-2학기 학부 수업입니다. 교과서는 따로 없었습니다. 교수님께서 앞에서 PPT로 수업을 진행하시고 출석, 중간 레포트, 기말 레포트가 6:2:2로 반영됩니다. 학부 수업들 중 가장 듣기 쉬웠던 수업입니다. 매 수업 끝부분에 감상이나 문제 같은 걸 내서 적어 내라 하시는데, 수업 중간에 한 탄소리를 적어야 하거나 수업은 들었는데 문제가 수업과는 관계없는 철학 문제라 어려워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.

#### 영화 청해

2018-1학기 선택 수업입니다. 마츠다 선생님께서 진행하셨고 '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'을 보며 대사를 적거나 그 안에 숨은 일본 문화나 뜻을 분석하는 수업이었습니다. 과제로는 4번 가량의 레포트가 나왔고 시험은 없었습니다.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겐 매우 흥미로운 수업일거라 생각합니다.

#### 비즈니스 일본어

2016-1학기 선택 수업입니다. 이소미 선생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. 저번학기 회화 수업 당시와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. 비즈니스 영어 공부하기에 좋은 수업입니다. 자기소개서나 발표 등의 과제가 많이 나옵니다.

<p>프로그램 운영</p>	<p>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) 오리엔테이션,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, 담당부서, 담당자명, 상담 프로그램 등</p> <p>국제센터에서 여는 행사 대부분이 유학생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</p> <p>버디 프로그램은 학생 정보도 제대로 확인을 안 하는 건지, 제가 1년 유학생인데 제 버디는 반년 후에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이었습니다. 덕분에 제 버디가 저보다 빨리 한국 가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게다가 버디들 중 유학생과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국제 센터까지 오는 버디들은 정말 소수였습니다. 그리고 그 버디들에게만 일을 던지듯이 맡겨서 일본인 버디 학생들과도 충돌이 있었습니다.</p> <p>가을 학기 키시베제에선 도와 주긴커녕 메뉴로 내놓을 음식을 맛봐 줄 테니 만들어 가지고 내려와라, 일본인 입맛에는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지시만 합니다. 그리고 키시베제에서 재료비만큼 수익을 얻지 못하면 유학생 돈으로 채워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.</p> <p>봄 학기에는 신입생 OT기간에 국제센터 소개를 유학생들한테 맡겼는데, 강제 참가에 출석 체크까지 하겠다 엄포를 놓았습니다. 그리고 리허설 까지 하면서 준비를 복더니 마지막까지 학생이 최대 몇 명 단위로 오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본인들이 말한 준비 시간도 한참 늦게 도착해서 여러모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. 이후 수십 명이나 되는 유학생들을 신입생들이랑 사진 찍혀주겠다고 단체로 지하로 데리고 가 사진만 찍고 올라가라 하고, 뒷정리도 전부 유학생들에게 시켰습니다. 유학생들에게는 하등 득 될 것 없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이후 비슷한 행사를 또 하는 모양인데, 유학생들이 참가를 거부하니 그쪽 학교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.</p> <p>국제센터가 주최하는 이벤트 중 좋은 건 수료식 뷔페 뿐입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	--

### 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----	-----------

날씨	<p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p> <p>가을 학기 도착 직후엔 매우 덥습니다. 비도 자주 오고 집 안에 습기가 심하게 찹니다. 태풍이 부는 날엔 집 전체가 흔들리지만 아직 무너지는 건 못 봤습니다. 가끔 집 근처 강이 불어나서 위험하다고 하니 주의하세요. 겨울이 되면 집이 정말 춥습니다. 바깥과 온도가 별 다를 게 없으니 전기장판 수면양말 두꺼운 잠옷 꼭 챙겨가시고 실내 슬리퍼나 카펫을 사는 편이 좋습니다.</p>
안전	<p>현지 안전 상황</p> <p>안전으로 위협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.</p>
숙소	<p>학교기숙사( 0 ) 홈스테이 ( ) 외부 숙소( ) 기타( )</p> <p>기숙사 이름, 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아리야마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낡았습니다. 집이 1층인데다 햇빛도 들지 않고, 빨래 널 곳도 없고, 심지어 바퀴벌레를 보았다면 당장 아리야마한테 집을 바꿔달라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. 집안 가구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도 웬만하면 아리야마한테 불만을 넣는 편이 좋습니다. 본인이 돈 안 드는 선에서 고쳐 줍니다. 바퀴벌레는 티아라와 악셀라에선 나왔습니다. 셀린누에선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에 대해서는 아리야마한테 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. 바퀴벌레 약 사라고 하고 끝입니다.</p> <p>한큐 역이 바로 앞에 있는 건 좋지만 매번 전철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울립니다. 티아라 같은 경우엔 집이 흔들리나 싶을 정도입니다. 집 방음 상태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벽 하나 두고 있는 방이 있다면 집 안에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.</p> <p>집 주변엔 백엔 로손을 비롯한 편의점이 몇 곳 있지만 슈퍼를 가려면 제일 가까운 곳이 20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.</p> <p>아리야마 집은 집 상태에 비해 집값이 싼 편은 아니므로 외부 숙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</p>

식사	<p>학교 Meal Plan (    ) 학교식당 개별이용 (    ) 홈스테이 (    )  외부식당        ( 0 ) 직접 요리        ( 0 ) 기타        (    )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초반엔 편의점 또는 외식 위주였다 후반으로 갈수록 요리를 했습니다. 일본 음식은 맛은 있었지만 튀김 요리가 많아 느끼하고 짭니다. 일본 김치는 한국과 달리 맛이 단 편이어서 저는 집에서 김치를 받아 먹었습니다.</p> <p>외식은 한 끼 평균 500엔 정도로 아주 싼 학교 앞 우동집 같은 것들은 300엔, 우메다 나가서 먹기 시작하면 1000엔이 기본입니다. 편의점 밥은 500~600엔 정도 합니다. 술을 마시면 병이 아니라 잔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당 2천엔은 기본으로 깨집니다.</p> <p>학생식당은 맛은 그저 그렇지만 유학생은 학생증 제시하면 정식 메뉴를 100엔 할인해 줍니다. 그리고 학교 빵집에서도 몇 프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 학교 빵집은 맛있으니 학부 수업 기간 동안 애용하셔도 좋습니다.</p>
교통	<p>통학방법, 시내교통, 주요도시 이동 관련</p> <p>버스는 거의 탈 일이 없습니다. 보통 전철로 다니게 되는데 매우 비쌉니다. 아이카와에서 학교까지 가는 전철은 정기권을 안 사면 한번에 150엔, 사면 한 달에 1700엔 입니다.</p> <p>통근권이 통학권보다 가격이 비싼데, 반년 유학생에겐 이 통학권을 살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. 직원에 따라 꼼꼼히 확인하는 직원이 있고 증명서 없어도 그냥 통학권으로 발급해 주는 직원도 있으니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엔 유의하세요.</p> <p>일본 가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있으면 좋습니다. 그런데 일본에선 자전거 타려면 보험이나 신고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.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도 전부 돈 받으니 돌아올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 까지 생각해보고 사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</p>

#### 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 : 원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1회 15만~20만원	

Fees	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,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.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. 예) University Support Fee, \$3,000	
보험료	한국에서 들은 보험 30만 + 일본 국민 건강 보험 + 숙소 화재보험(집마다 다름)	
숙소	한달 집세 420000원 +전기세, 가스비	
식비	한 달 300000원	
교통비	한 달 17000원	
책값	한 학기 50000원 가량	
기타1	여흥비	
기타2		
합계	한 달 80만~100만	

## 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 
(분량 자유)

준비는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생활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드니 아르바이트 하실 분들은 허가증 미리 떼 놓고 도장 꼭 챙겨가시고요, 국제 센터나 아리야마는 도움 하나도 안 되니 그냥 버리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차라리 인터넷 검색을 하세요.

정말 공부만 하러 온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말 걸고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.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는 사람 없이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잘 안 통해도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.

## 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(분량 자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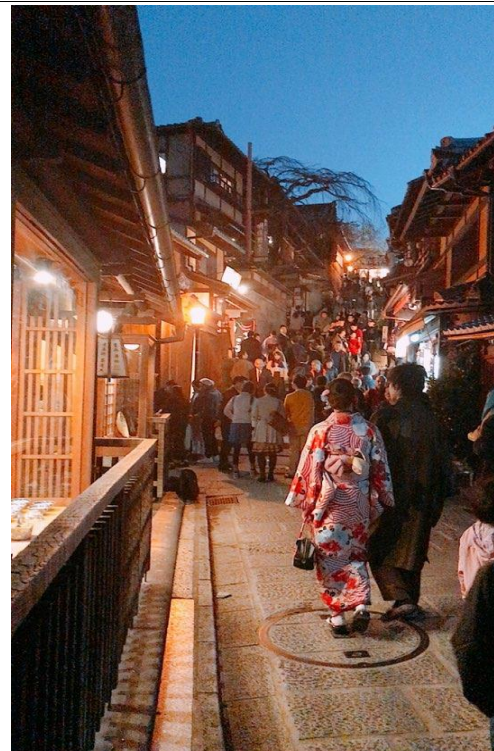
학과가 일본어 계열이 아니라 걱정했지만 그래도 교환학생 가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. 외국에서 처음으로 자취도 해 보고, 근처에 사는 한국인들끼리 같이 요리도 해 먹고,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해 보고, 외국 친구랑 함께 놀러 다녀도 보는 등 한국에서 하기 힘든 경험을 여럿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

주변 유학생들 중 일본에서 취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기에 저도 향후 취업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가까워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.

## 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오사카 성 벚꽃놀이



교토 기온





USJ



주택 전시관



우메다 햅파이브



아이카와 역 앞